

“불안한 美 쇠고기 안팔겠다”

광주·전남 유통업체 ‘소비자 신뢰’ 전제 판매 유보 방침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유통업체는 소비자 불안 해소와 국민 신뢰확보가 선행되지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쇠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유명 외식업체 등도 소비자 불안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수요가 기대만큼 안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외 이미지 악화가 우려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이미 지난해 8월 이후 미국산은 물론 호주산 등 수입쇠고기를 반입하지 않고, 영광 청보리 한우 등 지역산 한우만 판매해

오고 있다.

이장환 광주신세계 대표는 “현지법인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앞으로도 축산매장의 쇠고기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만 판매할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식품류는 안전성 여부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소비자들이 느끼기 전에 매장에서 수입산을 판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소비자 여론동향 등을 살펴보면 판매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수입육은 호주산만을 판매하고, 미국산은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했다가 같은 해 10월 중단한 롯데마트의 경우 협상타결 이후 LA갈비 등 선호 부위를 발빠르게 들어오기로 하고 관련 수입업체와 접촉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판매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도 경쟁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팔기 시작하면

뒤따라 판매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쇠고기를 많이 쓰는 햄버거 체인과 패밀리 레스토랑들은 예전부터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논란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는 100% 호주산만 쓰고 있는데 역시 이번에도 미국산을 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베니건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온 호주산을 그대로 쓴다는 입장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유기농산물 섭취
‘62day 한마당’
학사농장 1일 상무지구

유기농산물 생산업체인 학사농장이 오는 6월1일 오전 11시 광주시 상무지구 학사농장 유기농 타운에서 ‘62day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는 ‘1년에 하루 만이라도 유기농산물을 배달나게 먹어봅시다’를 주제로, 소비자들을 초청해 유기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이벤트다.

이번 한마당에는 50여명의 생산농민과 가공업체들이 참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가공·유통과정을 홍보하게 된다. 또 유기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시식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中企 인력·자금난 해소 시급”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이 공동주관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수상자들은 29일 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경영예로를 맡아놓고 정보를 교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이 자리에서 심상인 라이텍코리아 대표는 정부의 LED(발광다이오드) 산업의 성장동력개발사업 추진에 맞춰 관광서를 중심으로 한 LED조명 보급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형기우 동양화학 대표는 “중소업체가 기술개발 이후 시제품을 제작할 때 필요한 인프라를 찾기 힘들어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백희종 삼영산업 대표는 “최근 철근가격 상승으로 인해 채산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이갑형 인터세이브 대표는 “모바일게임을 개발, 해

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수출전문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 에로 호소했다.

김보곤 디케이산업 대표는 “광주·전남지역 선도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도기업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협의회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을 개발하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상사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박춘근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원자재구입자금을 상반기에 80% 조기 집행함으로써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소기업상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명의 업체 대표들이 수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상종가 돼지고기

삼겹살 100g당 2천230원 ... 1주일새 250원 ↑

돼지고기값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9일 농협유통 하나클럽 양재점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격은 삼겹살이 100g당 2천230원으로 지난해의 1천980원보다 12.6% 올랐다.

목살(100g)도 1천750원에서 17.7% 오른 2천060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가격은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농협유통은 전했다.

농협유통 위재인 대리는 “연중 돼지고기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 하절기에 접어들었고 최근 쇠고기·닭고기 기피로 이를 대체하려는 수요도 늘어난 상황인데 오히려 산지 출하량은 다소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계

속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우는 갈비(1+등급, 100g) 5천400원, 등심(1+등급, 100g) 7천300원, 양지(1+등급, 100g) 4천300원 등으로 한달 전에 비해 4~5%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닭은 851g짜리 1마리에 4천16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채소류는 배추의 경우 햇배추 물량이 늘면서 전주보다 11.5%(150원) 내린 1천150원에 팔렸고 감자도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좋았던 덕에 출하량이 증가해 1kg에 22.9%(550원) 떨어진 1천850원이었다.

양파값도 3kg에 2천900원으로 19.4%(700원) 하락했다. /연합뉴스



“우리 한우를 사랑합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주최로 29일 농협 목포농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한우 사랑 나라사랑 큰잔치’에 참석한 축협 관계자와 어린이들이 한우 소비확대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하나로마트 한우고기 10% 할인 판매

내달 4일까지 ... 전남농협 ‘한우사랑 나라사랑 큰잔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알리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9일 농협목포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한우사랑 나라사랑 큰잔치’를 개최했다.

‘우리 것의 가치 더 커진 든직한 이

를 한우!’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한우협회 관계자, 축협 조합장, 소비자, 어린이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큰 잔치에서는 한우고기 무료시식회, 요리전시회, 한우고기 부위별 용도 알맞기 등 이벤트 외에 한우

고기의 안전성·우수성 홍보 리플렛 배포, 품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또 농협목포농산물유통센터와 광주·전남 축협하나로마트 22개소에서는 29일부터 오는 6월4일까지 한우고기를 10% 이상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이덕수 전남본부장은 “이번 행사가 한우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위기의 한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제조업 체감경기 악화 3분기 경기전망지수 하락세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광주지역 제조업들의 향후 현장 체감경기가 어두울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가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

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가 ‘9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4분기(92)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지난해 4·4분기(118)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 하락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기가 지난 분기에 비해 ‘악화된다고’ 예상한 업체가 37.4%(전분기 23.4%)로,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 27.1%(전분기 28.8%)보다 더 많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노조에 임금동결 요구

올 첫 임단협 상건례

기아차는 29일 경기도 소하리 공장서 급속노조, 급속노조 기아차 지부와 임단협 상건례를 갖고 올해 임금동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정기호봉승급(기본급 대비 1.4%)을 제외한 임금동결 외에 ▲매년 5%씩 편성효율 개선 ▲휴게시간 단축 및 휴일 조정 ▲휴가비와 귀향교통비 등 복지혜택 한시적 지급 중단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기아차는 “회사 경영여건이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연초 이미 적용된 정기호봉승급 외에 추가 임금인상은 어렵다”며 “2년연속 영업적자를

극복하고 올해 흑자전환하기 위해 임금동결과 단협개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기본급 대비 8.9%인 13만4천690원의 임금인상 ▲상여금 800% ▲생계비 부족금(성과급) 300% ▲정년 2년 연장 ▲휴가일 수 증가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 요구안에 따르면 연간 1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회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노조도 공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www.tanongit.co.kr

Super 442

취급품목
골프공, 장갑 및 기타 골프용품

Power distance

VISION PLUS

호남 최대!! OPEN

안마의자·홈사우나 전문매장

부유의 호도시공 1년

백만원대 안마의자

평당 100만원대의 홈 사우나

안마의자/홈사우나 세안정 모질용

경기 모질 보법 제도 시행에 따른 복지용구 판매점 창업상담문의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52-59

011-026-2138
062614-2109
011-603-2617